

KMI 동향분석

VOL.161

2019 NOVEMBER

발간년월 2019년 11월(통권 제161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장영태
감 수 홍현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연구관리실 홈페이지 www.kmi.re.kr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연관산업에서 수산업 미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찾아야

이상건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sglee@kmi.re.kr/051-797-4907)

한기욱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hankiuk@kmi.re.kr/051-797-4902)

박혜진 해외시장분석센터 연구원
(phj3112@kmi.re.kr/051-797-4912)

최근 수산업은 연근해 수산물 생산 감소, 수산물 소비 위축, 노령화 진행 등으로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어 이를 탈피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수산혁신 2030 계획 등을 통해 최근 성장하고 있는 양식산업, 식품산업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산업과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며,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관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연관산업은 수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계된 투입재 공급 및 관련 서비스,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된 산출물 및 관련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수산 연관산업 종사자는 21만 명, 매출액은 16조 원, 사업체는 3만 7천개로, 수산분야(수산업 + 연관산업) 대비 종사자의 20.4%, 매출액의 24.3%, 사업체 수의 29.5%를 차지하였다. 특히 수산 연관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로 우리나라 수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예컨대 대표 수산 연관산업인 양식 기자재 시장은 2017년 636억 달러에서 2022년 890억 달러, 수산물 가공 기자재 시장은 2017년 11억 달러에서 2025년 14억 달러, 낚시 기자재 시장은 2017년 23억 달러에서 2022년 28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수산 선진국들은 수산 연관산업의 육성을 통해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세계적인 수산 강국인 노르웨이의 경우 석유플랜트 기술을 접목한 외해 플랜트 양식장 건조를 통해 고부가가치 품목인 연어 양식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일본 등의 경우도 수산식품 가공 기자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고차 가공 수산식품 생산은 물론 기자재 수출을 통해 국부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연관산업 중에서도 수산업과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며,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자재 산업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대표 기자재 산업으로는 양식 기자재, 수산물 가공 기자재, 낚시 기자재를 들 수 있다. 양식 기자재와 수산물 가공 기자재의 경우 5,000억원 이상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산화 비율이 60% 내외로 기술 혁신 등 경쟁력을 제고시킬 경우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하다. 낚시 기자재의 경우 국내 시장 규모가 3,731억 원으로 양식 기자재 및 수산물 가공 기자재에 비해 작지만, 연간 수출액이 1억 달러 이상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기자재 산업은 세계적으로 양식 중심의 생산 구조 확산, 가공 수산식품 수요의 증가, 레저 활동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세가 전망된다. 실제 주요 기관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세계 양식 기자재 산업은 2017년 636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890억 달러로 연평균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수산물 가공 기자재 시장도 가공품 수요 증가로 2017년 11억 달러에서 2025년 14억 달러로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낚시 기자재 시장도 중국 등을 중심으로 레저 활동이 대중화되면서 2017년 23억 달러에서 2022년 28억 달러로 연평균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국내에서도 기자재 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 및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자재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 박지원 의원이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을 발의하였으며, 기자재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정책 제도 마련을 위해 「수산업 실태조사」에 연관산업까지 포함시켜 조사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재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등 개별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기자재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부분에서 성장을 위한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우선 국내 기자재 산업의 분야별 경쟁력이 상이한 만큼,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기본 방향을 따르되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즉 국내 시장 및 국산화 비율, 교역 규모를 감안할 때 양식 기자재의 경우 先내수 後수출 전략을, 수산물 가공 기자재는 내수 및 수출 병행 전략을 낚시 기자재는 적극적 해외 수출 시장 확대 전략 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글로벌 시장 수요 대응을 위한 연관산업 R&D 추진이 필요하다. 양식 기자재, 수산물 가공 기자재, 낚시 기자재 시장의 경우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자원보다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3개 수산업 연관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세계 시장 수요가 많고,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문에 대한 R&D 확대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수산업 연관산업 기업들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시장 조사, 기술 개발, 인력 양성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시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 분석에서부터 산업화 지원, 인력 양성까지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수산업 연관산업 종합지원 센터 건립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성장 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 필요

■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은 100만 톤 수준에서 정체하고 양식어업은 해조류 위주로 증가

- 수산자원의 감소로 인해 최근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이 100만 톤 수준에 정체되면서 어가들의 경영 실태가 악화되고 있음
- 양식어업 생산은 증가하고 있지만, 해조류 중심으로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시장 가치가 높은 어류 생산은 정체 내지 감소세를 보임

■ 사회·인구 구조적 변화와 경기 침체 등으로 수산물 소비 위축

-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60kg에 달할 정도로 많이 먹고 있지만, 최근 사회인구 구조적 변화, 경기 침체 등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음
- 특히 생선 특유의 비린내, 가시 제거의 불편함 등으로 청소년층이 수산물 소비를 기피하고 있는 것은 향후 수산업의 위기로 작용할 수 있음

■ 수산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이 필요

- 수산물 생산 감소, 수산물 소비 위축 등 성장의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수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산자원 관리, 수산물 유통·소비 혁신, 수산기업 육성 등 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함께 새로운 성장 산업을 발굴하고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산업 간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국 및 국내 각 산업은 산업 내 혹은 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수산업도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교역, 레저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어 있으며, 수산 연관산업의 성장은 궁극적으로 수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만큼, 연관 산업에 대해 관심이 필요함

■ 주요 수산 선진국 수산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수산업 성장 도모

- 실제 주요 수산 선진국에서는 수산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수산업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 세계적인 수산 강국인 노르웨이의 경우 석유 플랜트 기술을 접목한 외해 플랜트 양식장 건조를 통해 고부가가치 품목인 연어 양식을 추진함
- 가공 식품 선도국인 독일, 일본 등은 가공 기자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고차 가공 수산식품 생산은 물론 기자재 수출을 통해 국부 창출에 기여함

수산 연관산업 종사자 21.3만 명, 매출액 16조원¹⁾

■ 수산 연관산업은 수산업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 해외에서 수산업 범위 확대

- 수산연관산업은 수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계된 투입재 공급 및 관련 서비스, 그리고 이로 인해 파생된 산출물 및 관련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음
- 해외에서도 최근 수산업의 범위가 어업, 가공, 유통을 비롯해 투입물, 산출물에 관련된 활동, 레저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수산업 실태조사에서는 어선건조, 기자재, 어선 등 유통업 그리고 서비스업을 ‘연관산업’으로 분류

- 2016년 8월 국가승인 통계(제14602호)로 지정된 수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에서는 수산업과 연관산업의 범위 및 주요 통계 지표를 조사하여 발표함
- 실태조사에서는 수산업의 범위를 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여가산업으로 분류하고, ‘연관산업’으로는 어선건조, 기자재, 어선 등 유통업, 서비스업으로 분류함

그림 1. 수산업과 연관산업 범위



주: 수산업 실태조사 분류 기준임

■ 수산분야 대비 연관산업 비중, 종사자 20.4%, 매출액 24.3%, 사업체 수 29.5%

- 수산분야(수산업 + 연관산업) 전체 종사자 수는 104만 명으로, 이 중 수산업 부문이 83만 1천명, 연관산업 부문이 21만 3천 명으로 20.4%를 차지함
- 수산분야 매출액은 65조 9천억 원으로 '15년 국가 전체 매출액의 1.2%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에서 연관산업 매출액은 16조 원으로 수산분야 매출액의 24.3%를 차지함
- 연관산업 분야의 사업체는 3만 7천 개로 수산분야 전체 사업체(12만 7천개)의 약 30%를 차지함

1)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7.4.17.) "수산업 종사자 104만명, 수산분야 매출액 65.9조원" 자료를 참고로 작성함

표 1. 수산 분야 종사자, 매출액, 사업체 현황(2015년 기준)

구분	단위	수산분야 (A=B+C)	수산업(B)	연관산업(C)	비율(C/A)
종사자 수	명	1,044,106	831,286	212,820	20.4%
매출액	백만원	65,867,817	49,850,304	16,017,513	24.3%
사업체 수	개	126,804	89,418	37,386	29.5%

자료: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17.4.17.) "수산업 종사자 104만명, 수산분야 매출액 65.9조원"

기자재 산업은 수산업과 동반 성장이 가능하고 지속적 성장 전망

■ 대표 연관산업은 양식 기자재, 수산물 가공 기자재, 낚시 기자재 산업

- 연관산업 중에서도 수산업과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며,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문은 양식 기자재, 수산물 가공 기자재, 낚시 기자재 등 기자재 부문임
- 국내 양식 기자재 시장규모는 7천억 원, 국산화 비율은 56%로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연간 무역수지는 1천 7백만 달러 적자 구조를 보임. 국내외 수산업 생산이 양식어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양식 기자재 시장의 지속적 성장이 전망됨
- 수산물 가공 기자재 시장 규모는 약 5천억 원, 국산화 비율은 57% 정도로 추정되며, 소비자의 가공 식품 소비 선호 증가로 향후 지속적 성장이 전망됨
- 레저 활동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레저 활동인 낚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낚시 기자재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 국내 낚시 기자재 시장은 3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연간 1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음

표 2. 우리나라 수산 기자재 산업 현황

구분	양식 기자재	수산물 가공 기자재	낚시 기자재
국내 시장 규모	7,228억 원	5,000억 원	3,731억 원
국산화 비율	56.0%	56.9%	96.2%
교역 규모	163백만 \$	4.4백만 \$	202백만 \$
	- 수출 73백만 \$	- 수출 2.5백만 \$	- 수출 112백만 \$
	- 수입 90백만 \$	- 수입 1.9백만 \$	- 수입 90백만 \$
무역수지	적자 구조(17백만 \$)	흑자 구조(0.7백만 \$)	흑자 구조(22백만 \$)

주: 1) 교역 규모와 무역수지는 2013~2017년 평균치로 산출함

2) 양식 기자재와 수산물 가공 기자재 국산화 비율은 염선희·조정희(2014)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낚시 기자재는 2016년 기준 낚시용품 전체 출하액에서 수출입액을 감안하여 자급률 개념으로 산출함(환율 1,100원 가정)

자료: 임경희 외, "수산업 주요 연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관한 연구", KMI, 2018, p.212.

■ 2022년 세계 양식 기자재 시장, 890억 달러 전망

- 세계 양식 기자재 시장은 양식 산업 발전 및 집약적인 양식업으로 전환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양식 기자재 시장은 2017년 636억 달러에서 2022년 890억 달러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모든 지역에서의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성장이 기대됨

표 3. 세계 양식 기자재 시장 전망

단위 : 백만\$

국가(지역)	2017	2022	연평균 증감률
전체	63,600	89,000	7.0%
국가· 권역별	아시아/태평양	50,000	7.1%
	유럽	5,180	6.1%
	중남미	4,250	5.9%
	아프리카/중동	2,980	7.6%
	북아메리카	1,190	5.6%
품목별	양식사료	38,270	7.6%
	양식장비	20,020	5.6%
	양식 소모품	5,310	6.9%

주: 2022년은 전망치임

자료: The Freedonia Group(2013), pp. 63-67.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2025년 세계 수산 가공 기자재 시장, 14억 4천 6백만 달러 전망

- 수산 가공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세계 수산 가공품 시장은 2017년 479억 달러까지 성장하였으며, 2025년에는 679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²⁾
- 이에 따라 세계 수산물 가공 기자재 시장규모도 2025년 14억 4천 6백만 달러로 2017년(10억 6천 8백만 달러) 이후 연평균 3.9%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4. 세계 수산물 가공 기자재 시장 전망

단위 : 백만\$

국가(지역)	2017	2018	2020	2023	2025	연평균 증감률
전체	1,068	1,112	1,206	1,335	1,446	3.9%
국가· 권역별	유럽	367	377	406	440	3.2%
	중국	209	222	245	280	5.1%
	북미	177	185	198	217	3.3%
	아시아·태평양	113	118	130	146	4.3%
	일본	106	111	119	132	3.7%
	기타	95	99	108	121	4.1%

주: 1) 생산액 기준으로 산출함

2) 2018~2025년은 전망치임

자료: QYResearch(2018. 10), p. 38.

2) Experts Interview and QYR Equipment Research Center, Oct 2018. p. 129.

■ 2022년 세계 낚시 기자재 시장 28억 4천만 달러 전망

- 세계 낚시 기자재 시장은 2017년 22억 9천만 달러에서 2022년 28억 4천만 달러로 연평균 4.4%의 높은 성장세가 전망됨
- 모든 국가·권역·품목의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가·권역에서는 아시아태평양, 품목별에서는 낚싯대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5. 세계 낚시 기자재 시장 전망

단위 : 백만\$

국가(지역)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감률	
전체	2,291	2,386	2,489	2,600	2,717	2,841	4.4%	
국가·권역별	북아메리카	820	855	892	932	975	1,020	4.5%
	남아메리카	286	297	309	323	338	353	4.3%
	유럽	649	676	705	737	771	806	4.4%
	일본	121	125	130	134	139	144	3.6%
	아시아 태평양	328	343	359	376	394	413	4.7%
	중동·아프리카	87	90	93	97	101	105	3.8%
품목별	낚싯대	710	744	780	818	857	899	4.8%
	낚시릴	365	380	396	414	434	455	4.5%
	낚싯바늘	215	225	235	246	257	269	4.5%
	낚시루어	342	357	374	392	411	431	4.7%
	기타 낚시용품	658	681	705	731	759	787	3.6%

주: 2018~2025년은 전망치임

자료: Fact.MR(2018), pp. 52-61. 자료 참조 저자 정리

연관산업에 대한 관심은 증가, 육성을 위한 지원은 제한적

■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및 연관산업 조사 실시

- 국내에서도 수산 연관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 및 중요성을 인지하여 「수산 기자재산업 육성법」 발의³⁾,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⁴⁾ 등 관련 법률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수산업에 한정하여 실시하였던 ‘수산업 실태조사’가 2015년 기준 조사부터 수산물 기자재 산업, 서비스업 등 전·후방 연관산업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시킴

3) 제345회 국회(임시회)에서 박지원 의원 등 15인이 발의(2016년 8월)한 후 2018월 2월 22일 위원회에 상정됨

4) 제369회 국회(임시회)에서 경대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2019년 4월)함

■ 기자재 산업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은 제한적

- 국내법상 수산 기자재 산업에 대해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별도의 개별법이 부재한 상태⁵⁾로, 각 부문별로 관련 개별법에 의거 일부 지원 근거가 마련됨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양식산업 발전법」에서는 수산 기자재 산업 등을 육성하고 기계화·시설 현대화, 양식산업 기술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함
- 「식품산업 진흥법」에서는 식품산업 기술 개발 및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정책 수립 및 시행 규정을 통해 가공 기자재 산업을 육성하도록 규정함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낚시 관리에 대한 규정 중심으로 일부 조항에서 낚시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됨
- 수산 기자재 관련 정책과 사업은 각 개별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으나, 지원 및 정책 대상이 대부분 기자재 수요자인 생산자, 가공업자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자재 사업체를 직접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기자재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의 신속한 제정⁶⁾을 통해 기자재 산업에 대한 법적 정의 및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 6. 기자재 산업 관련 법률 및 제도

구분	관련 법률	관련 제도
양식 기자재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2조(정의), 제24조(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촉진)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가공 기자재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제19조의2(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시책의 마련) 등
낚시 기자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40조(미끼기준의 설정), 제41조(미끼의 제도 등의 금지), 제43조(낚시진흥기본계획 등), 제45조(낚시 관련 산업 등의 자원육성) 등

5) 「수산기자재산업 육성법」 국회 계류 중

6) 해양수산부 수산혁신 2030 계획(2019.2.13.)에서 어구, 낚시용품, 양식·유통·가공기자재 등 고부가가치 기자재산업 육성 근거 마련을 위해 2019년 하반기 「수산기자재산업육성법」 제정을 계획하고 있음

수산 연관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 모색 필요

■ 국내에서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해외 시장 개척 필요

- 수산업 연관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있어 분야별 경쟁력 수준이 다른 만큼, 공통적으로는 기본 방향을 따르되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됨
- 국내 시장 및 국산화 비율, 교역 규모를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양식 기자재의 경우 先내수 後수출 전략을, 수산물 가공 기자재는 내수 및 수출 병행 전략을 그리고 낚시 기자재는 해외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함

■ 글로벌 시장 수요 대응 연관산업 R&D 추진

- 양식 기자재, 수산물 가공 기자재, 낚시 기자재 시장의 경우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자원보다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특징을 보임
- 따라서 3개 수산업 연관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세계 시장 수요가 많고,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문에 대한 R&D 확대가 요구됨
- 실제로 국내 산업체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업체로 현재 지원되는 R&D의 경우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단기성 지원에 치중되어 있음. 따라서 체계적인 연관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중장기 종합 R&D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근거한 지원이 필요함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 조직의 구성 검토 필요

- 우리나라 수산업 연관 기업들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시장 조사, 기술 개발, 인력 양성을 모두 담당하고 있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소규모 영세 업체의 경우 해외 시장 조사가 쉽지 않고, 기술 개발에 있어서도 자금 부족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어려우며, 국내 전문가들의 제약으로 전문 인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시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 분석에서부터 산업화 지원, 인력 양성까지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수산업 연관산업 종합지원 센터 건립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KMI 동향분석

구분	제목	발간일
제1호	한진해운사태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연간 50만 TEU 이상 줄어든 듯	2016.11.02
제2호	지진예측을 위해 해저활성단층 조사가 시급하다	2016.11.09
제3호	미 대선 결과에 따른 해운·항만·수산 부문 영향과 대응	2016.11.16
제4호	우리나라 선박의 28%, 고효율·친환경 선박으로 교체가 시급하다	2016.11.23
제5호	해운업 구조조정 지원, 정책금융 왜 실효성 없었나?	2016.12.01
제6호	해운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해운금융 시스템 구축해야	2016.12.08
제7호	수산업·수산물, 식량부문의 4차 산업혁명 예고	2016.12.15
제8호	해운 얼라이언스 재편으로 부산항 환적물동량 추가 감소 우려	2016.12.26
제9호	해양수산정책,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양수산의 성과와 과제	2017.01.04
제10호	해양수산과 국민경제 - '2017 KMI 해양수산 전망대회'지상 중계 -	2017.01.11
제11호	중·일 해양경비력 강화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 필요	2017.01.19
제12호	2016 유엔총회 결의, 한국 KMI의 역할 높이 평가	2017.01.26
제13호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으로 추락, 특단의 자원회복 대책 필요	2017.02.01
제14호	빅 데이터로 본 2016 해양수산	2017.02.08
제15호	對EU 수산물 수출, 환경인증제도 개발에 대비 필요	2017.02.15
제16호	남해 EEZ 모래채취 갈등을 수습할 공동연구와 대책이 시급	2017.02.22
제17호	아베 정권, 독도 침탈 노골화 - 초·중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명기 -	2017.02.23
제18호	'전국 해양수산 가치 공유로 지역 상생발전시대 막 열어' 2017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7.03.02
제19호	동북아 허브경쟁력 강화 위해 부산항 LNG 벙커링 터미널 구축 서둘러야	2017.03.15
제20호	2017년 중국 '양회', '해양강국' 건설 천명	2017.03.24
제21호	3대 얼라이언스의 체제 변화로 부산항 운영 비효율성 개선 시급	2017.03.31
제22호	우리 해운산업도 민관 협력 산업정책(Smart 산업정책) 적용해야	2017.04.07
제23호	국민 78.7%, 해양수산에 '보통 이상의 관심', 국민 인식과 정책 수립 함께 가야: KMI, '전국' 규모의 '해양수산 국민인식조사' 첫 실시	2017.04.14
제24호	러시아 명태 비즈니스 모델, 우리 수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대	2017.04.19
제25호	어린 물고기를 살릴 지혜로운 소비로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를 주도해야	2017.04.21
제26호	블록체인 기술 적용으로 컨테이너 화주의 비용 20% 절감 가능	2017.04.28
제27호	국내 크루즈시장 체질개선 시급	2017.05.04
제28호	항만도시 미세먼지 대책 수립 시급	2017.05.18
제29호	中 일대일로, 글로벌 SCM 구축을 통한 중국식 세계화 전략 본격화	2017.05.25
제30호	새 정부의 해양수산 일자리 창출 방안	2017.06.01
제31호	4차산업혁명의 침범! ,로보틱·스마트 항만이 현실로... - 한국, 완전무인자동화 항만 세계 흐름을 따라가야 -	2017.06.07
제32호	60돌 맞은 원양산업, 원양어업 재건을 위한 특단 대책 필요	2017.06.14
제33호	'여객 안전'과 '일자리 창출' 위해 연안여객 운송의 대중교통체계 편입 필요	2017.06.21
제34호	소매 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교체시급, 국민들은 가격표시제 요구	2017.06.28

구분	제목	발간일
제35호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위해 AMP 설치 서둘러야	2017.07.05
제36호	G20 해양쓰레기 실행계획 채택, 국내 관리 및 대응 강화 필요	2017.07.12
제37호	해운-조선, 상생(相生) 통해 불황극복과 재도약 모색해야	2017.07.19
제38호	국내 해수욕장 관리, 패러다임 변화 모색 필요	2017.07.26
제39호	최근 해양 국제기구의 거버넌스 변화와 우리나라의 역할 증대	2017.07.26
제40호	재조해양(再造海洋)으로 해양의 '판'을 키워야 : '2017 해양수산 국정과제 이행 전략 세미나' 지상중계	2017.08.02
제41호	신재생에너지, 해양에서 답을 찾자	2017.08.09
제42호	수산업에 대한 UN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영향	2017.08.16
제43호	신정부, 선박교통관제(VTS) 관리체계 개선 필요	2017.08.23
제44호	바다의 불청객 갯벌생이모자반, 다각적인 대응 방안 수립 시급	2017.08.31
제45호	한진해운 사태의 반성과 원양정기선 해운 재건 방안	2017.09.12
제46호	한·러 정상회담, 북방경제 협력 기회 - '9 브릿지'를 해양수산세부 전략으로 구체화할 필요 -	2017.09.13
제47호	갯벌복원 사업 확대에 대비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2017.09.20
제48호	일본 항만 발견 붉은 불개미 확산 우려, 방역체제 마련 시급	2017.09.20
제49호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항만시설 보안료의 현실화 필요	2017.09.29
제50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강원세미나' 지상중계	2017.09.29
제51호	'국민 횡감' 자리매김한 수입 연어, 안정적인 먹거리 차원 관리 필요	2017.10.12
제52호	부산항 터미널 생산성 향상대책 수립 필요	2017.10.23
제53호	대형 해양사고 예방대책이 우선되어야 - 물적, 인적, 제도적 측면에서의 과학적 사고 원인분석과 사전 투자 확대 필요 -	2017.10.27
제54호	미국의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국내 대책 필요	2017.10.27
제55호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2017.11.01
제56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충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1.10
제57호	수산업직불제 제도 개선 방향 - 마을공동기금 활성화 등으로 어업인 만족도 높이는 내실화 필요 -	2017.11.15
제58호	새 헌법에 해양수산의 가치 반영되어야	2017.11.22
제59호	1만 톤급 이상 대형 제2쇄빙연구선 건조 시급	2017.11.24
제60호	제19차 당 대회를 통해 본 시진핑 2기 중국 해양수산 정책 방향	2017.11.29
제61호	바다의 반도체 김, 수출 1조원 달성 전략	2017.12.06
제62호	지역균형발전, 해양수산에서 답을 찾다: '해양수산 전국포럼 전남 지역세미나' 지상중계	2017.12.13
제63호	골고루 잘사는 국가 실현,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작은 SOC 사업을 강화해야	2017.12.20
제64호	부산항, 2,000만 TEU 달성 의미와 향후 과제	2017.12.27
제65호	'핵심 키워드'로 본 2017년 글로벌 해양수산	2018.01.03
제66호	빅데이터로 본 2017 해양수산	2018.01.10

구분	제목	발간일
제67호	해양수산물 국민경제 - '2018 해양수산물 전망과 과제' 지상 중계 -	2018.01.17
제68호	'2017년 KMI 물류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물류 R&D 추진되어야 - 범부처 R&D 추진필요 -	2018.01.24
제69호	바다낚시 정책, 안전·환경·자원 관리 차원에서 접근해야	2018.01.31.
제70호	해상 안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안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추진 필요	2018.02.07.
제71호	일본 '영토·주권전시관' 개관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 중요 사료의 영문화 작업을 통하여 세계 주요 전문가 대상 홍보 강화해야 -	2018.02.07.
제72호	자율운항선박, 침체된 해운산업 및 조선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2018.02.14.
제73호	중국 '북극정책백서' 공식화로 북극 투자 증가할 듯	2018.02.21.
제74호	스마트항만(Smart Port), 전체 물류망을 고려한 로드맵 수립 필요	2018.02.28.
제75호	대형 재난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선박 및 항만시설 활용방안 강구 필요	2018.03.09.
제76호	연안지역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지역 중심 대응방안 마련 시급	2018.03.14.
제77호	바다이용의 대전환,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2018.03.21.
제78호	전국 해양수산물 현안과 정책 공유로 지역혁신성장과 균형발전에 본격적 돌입	2018.03.30.
제79호	정부의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의의와 과제 - 해운 정책 지속적 추진 필요 -	2018.04.13.
제80호	국민 92.2%, 미래 국가발전에 해양이 중요하다고 인식: '2018 해양수산물 국민인식조사' 결과	2018.04.20.
제81호	2017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크게 개선	2018.04.30.
제82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2028년 종 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2018.05.10.
제83호	연안여객 안전 지원을 위해 해상여객안전공단(가칭) 설립 필요	2018.05.16.
제84호	전북 수요 증대를 위해 산지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등 대책 마련 필요 - 수익개선 위한 폐사율 저감 혁신 세워야	2018.05.24.
제85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재활용 정책 확대해야	2018.05.31.
제86호	6.13 지방선거 이후, 지역 해양수산물 정책대응 필요	2018.06.11.
제87호	섬 정책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섬 전담 연구기관 설립 필요	2018.06.14.
제88호	수산물양식, 국제양식규범에 맞게 생산체제 개선해야	2018.06.20.
제89호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에 정부 적극 나서야 : 동티모르 호주 조정 사건의 시사점	2018.06.27.
제90호	빅데이터 분석은 해운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2018.07.04.
제91호	남북한 해양협력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추진 필요	2018.07.11.
제92호	북한 경제 특구를 활용한 남북 해양수산물 협력 필요	2018.07.18.
제93호	해양벤처 육성을 위해서는 해양 분야 전용펀드 조성해야	2018.07.25.
제94호	김 재고 증가, 과잉생산 대책 마련 시급	2018.08.01.
제95호	해양바이오 기술사업화 정책지원 강화해야	2018.08.14.
제96호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강화해야	2018.08.29.
제97호	IMO 전략계획을 수용한 정책 수립과 이행성과지표를 구축해야	2018.09.05.
제98호	항만근로자 안전관리 거버넌스 재구축 필요	2018.09.21.
제99호	중국 진출 화주기업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물류기업 경쟁력 제고 및 정부 지원책 모색 필요	2018.10.02.
제100호	'스마트 어촌(Smart Fishing Community)' 도입으로 어촌 인구소멸에 대응해야	2018.10.17.
제101호	군 경계철책 철거 전 사전 대비 필요	2018.10.31.
제102호	우리나라 정기간 해운업계,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보다 적극 대비해야	2018.11.07.

구분	제목	발간일
제103호	해양강국 위해 한국해양법연구소 설립해야	2018.12.12.
제104호	우리나라 극지진출 40년, 미래 30년을 위한 극지 비전 수립 - '2018 북극협력주간' 성공적 개최와 세계최초 '2050년 극지비전' 선포	2018.12.19.
제105호	블록체인의 확산과 해운물류분야의 대응	2019.01.02.
제106호	해양수산업과 국민경제 - '2019 해양수산업 전망과 과제' 자상 중계-	2019.01.18.
제107호	2020년 황산화물 규제 시행 대비 해운부문 체계적 대응 필요	2019.01.30.
제108호	"국민환갑 광어", 소비 다변화 등 생존전략 마련해야	2019.02.13.
제109호	한·일관계 개선 위해 일본의 자세 변화 필요	2019.03.08.
제110호	수산업관측사업 성과와 사회적 후생 증대 효과	2019.03.13.
제111호	특별법 이행을 위한 항만 대기오염물질 관리제도 정비 시급	2019.03.23.
제112호	2019년 중국 '양회', 해양수산업 관련 이슈 봇물, 항만비용 인하와 행정간소화 조치에 주목 필요	2019.03.27.
제113호	'국민 80%, 해양이 국가발전에 기여' -KMI 2019 해양수산업 국민인식조사-	2019.04.17.
제114호	선박연료유 공급선박 bunker링 효율성 제고해야	2019.04.25.
제115호	4.27 판문점선언 1년, 해양수산업 남북협력 점검과 과제	2019.04.30.
제116호	주요국 해양정책 동향과 시사점 - 해양기반 성장전략 다시 만든다. -	2019.05.08.
제117호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국산 대체로 생산어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듯	2019.05.09.
제118호	해양수산업 혁신사례 공유로 지역혁신성장 촉진	2019.05.15.
제119호	해양관련 국제기구, 글로벌 해양이슈 협력강화 논의 - 2019 글로벌 오션레짐 컨퍼런스 -	2019.05.24.
제120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북극이사회와 우리나라 북극협력 방향	2019.05.29.
제121호	미·중 무역전쟁이 해운·항만에 미치는 영향	2019.06.13.
제122호	서핑문화 정착을 통한 해양레저 활성화	2019.06.13.
제123호	어업작업 안전재해 감소 대책 시급 - 관련 제도 및 조직 정비 필요-	2019.06.18.
제124호	유조선 파격이 해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2019.06.28.
제125호	친환경 선박법 이행을 위한 구체적 후속 조치 필요	2019.07.03.
제126호	북한 노동신문 키워드 분석으로 본 해양수산업 분야 시사점	2019.07.16.
제127호	대서양 연어 위해우려중 지정 유지에 따른 양식업계 대응 방향	2019.07.17.
제128호	섬 가치 제고, 접근성 개선과 고유자원 관리가 관건 - KMI 국민 섬 인식조사 결과 -	2019.07.17.
제129호	해양공간기본계획 7월 말 시행 - 지역사회 인식 증진과 역량 강화에 투자해야 -	2019.08.01.
제130호	항만도시 고용창출을 위한 항만배후지역 풀필먼트센터 구축 시급	2019.08.02.
제131호	현대상선의 얼라이언스 가입 의미와 향후과제	2019.08.02.
제132호	일본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망 구축 전략과 시사점	2019.08.05.
제133호	해양수산업 총산출액, 전 산업 9위 - 재도약을 위한 성장 전략 필요 -	2019.08.09.
제134호	한국 수산물 수출기업 성장 모멘텀 발굴 - 해외 글로벌 수산기업 사례로 본 -	2019.08.16.
제135호	한일 간 무역전쟁, 공급사슬 위험관리에 성패 달려 -해외 공급자 다변화 및 국내 대중소기업간 공급사슬 생태계 구축 등 대책 필요-	2019.08.19.
제136호	2018년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 선석생산성 전년 대비 소폭 감소	2019.08.20.
제137호	국제해사기구(IMO), 2030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新추진연료(화석 연료-OUT) 개발 및 사용을 의미	2019.08.22.
제138호	중국 항만시설사용료 추가 인하가 우리 항만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9.08.23.
제139호	2분기 해양수산업 업황 여전히 어려우나 3분기 점진적 개선 기대 - 해양수산업 경기실사지수(BSI) 발표 -	2019.08.28.
제140호	항만(부산항 등)-대륙철도 해륙복합운송으로 유라시아 지역 물동량 유치해야	2019.08.29.

구분	제목	발간일
제141호	일본의 수출규제가 해양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 현재 11.9% 영향, 지속되면 23.0%로 증가 -	2019.08.29.
제142호	2019 제2차 한-베트남 공동 세미나 - ‘한-베트남 교류 협력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지상 중계 -	2019.09.10.
제143호	K-IFRS 제1116호 ‘리스’ 적용과 대응방향	2019.10.25.
제144호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 방향	2019.10.25.
제145호	해양포유류 자원 조사와 보호프로그램 마련 시급 - 2021년 미국의 관련 수산물 수입규제 유예기간 종료 -	2019.10.28.
제146호	미래 수산물 구매세대, 청소년의 수산물 소비행태 및 인식 조사결과	2019.10.28.
제147호	육상기인 해양 플라스틱 예방 정책을 강화해야	2019.10.30.
제148호	러시아 항만인프라 투자에 대한 실효성 제고 전략	2019.10.30.
제149호	Tax Benefit을 통한 민간부문의 선박금융 활성화 필요	2019.11.01.
제150호	2019년 미국의 국제 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19.11.01.
제151호	‘유엔 공해생물다양성협약’ 제정(制定) 협상 대응전략 마련해야 - 내년 4월 협약초안 유엔 총회 제출 -	2019.11.04.
제152호	해운·항만 정책 의사결정 지원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필요	2019.11.06.
제153호	컨테이너 선박다형화와 항만의 대응	2019.11.07.
제154호	해상에 설정된 보호지역, 지역주도형·협력적 접근방식으로 개편해야	2019.11.08.
제155호	해수욕장 이용행태 변화로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2019.11.12.
제156호	국제여객항 운영체계 개선과 여객 편의성 제고 필요	2019.11.13.
제157호	해양교육 문화 진흥법 만든다.	2019.11.14.
제158호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글로벌 SCM 협력을 강화해야	2019.11.25.
제159호	디지털 연계 공동추진이 실효성 있는 스마트항만 구축의 첫걸음	2019.11.27.
제160호	수산물포장,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기능 고도화를 추구해나가야	2019.11.27.

URL: <https://www.kmi.re.kr/>